

“달빛철도 노선 조기 확정을”...광주시, 국토부 건의 왜?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혁신지구 사업에 직·간접 영향
 노선에 따라 철도시설 이전·재배치 계획 걸림돌 될 수도

광주시에 국토부에 달빛고속철도 노선 조기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달빛철도 노선이 새로운 광주를 위한 지역 주요사업인 광주역 일대 뉴딜·혁신지구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연결하는 203.7km 길이의 고속철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KTX 미진입이 도심 기능의 쇠퇴로 이어진 광주역 일대가 2018년

8월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광주역 일대 뉴딜사업의 면적은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원 50만㎡(역사부지 20만㎡ 포함)다. 사업 기간은 2019~2025년까지다. 사업비는 국·시비(500억 원), 민자(7493억 원) 포함 총 1조156억 원이다.

뉴딜사업은 크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1단계)과 광주역 복합개발사업(2단계)으로 분류

된다.

마중물사업인 1단계는 광주시와 국토부가 키를 잡고 있다. 사업비는 2663억 원으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등 창의문화사업의 신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다. 1단계 사업은 순항중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2단계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은 광주시·코레일·민간이 주도한다. 사업비 규모는 민자 749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시설 이전·재배치 뒤 민간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역 일대는 뉴딜사업과는 별개로 2020년 12월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에도 선정됐다. 기업혁신성장센터·복합허브센터·사회적경제

혁신타워·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사업비는 1688억 원 규모로, 실시계획 단계다.

일대 혁신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 속 지난 해 7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달빛철도가 광주역 복합개발사업과 혁신지구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선 결정이 늦어질 경우 대규모 민자 유치에 통한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선에 따라서는 철도 시설의 이전과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복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개발계획의 확실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지구사업 주요 내용 간 미세한 조정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선의 위치에 따라 개발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토부·코레일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달빛철도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계속해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급격 확산’ 광주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재개

상무지구 5·18교육관 주차장 설치
 오늘부터 매일 오후 2시~오후 9시
 만 60세 이상·신속항원 양성 대상

광주시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않다는 판단에서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에서는 515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1일 2649명, 2일 3553명, 3일 3416명, 4일 3394명, 5일 2845명, 6일 3415명, 7일(휴일) 1997명, 8일 3461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8일과 9일 불과 하루 사이 확진자 수가 1698명이나 늘었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만7855명, 6월 5813명, 7월 3만494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달의 경우 9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만988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도 지난 4일 175.4명, 5일 185.3명, 6일 191.9명, 7일 203.1명, 8일 208.1명, 9일 216.2명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이 끝나면 일일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서구 상무지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주차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검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해외입국자·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양성자·밀접접촉자(지정 문자)·임영 장정 등 PCR 우선순위 대상자만 가능하다. P

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은 신분증·의사소견서·보건소 통보문자·양성이 확인된 자가진단키트(밀봉) 등 증빙자료를 지참한 뒤 방문해야 한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시민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지역 내 385곳)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도심서 수확한 청포도 나눔

10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동 공무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수확한 청포도를 지역 아이들과 나누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3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3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 3호기 원전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

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재가동이 가능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빛 3호기는 4호기와 함께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중 공극(구멍)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안위는 지난 2020년 정기검사 등을 통해 한빛 3호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 및 기기의 보존제 체결상태, 도장재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해 격납건물이 견고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광복절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http://www.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